

[업계소식]

◆ 영림목재, 중기중앙회에 파이프 오르간 기증



목재전문기업 영림목재(대표·이경호)가 중소기업중앙회에 1억원 상당 '오르겔(파이프 오르간)'을 기증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 부회장이면서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인 이 대표는 9월 1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에 오르겔 기증을 약속했다. 제작은 우리나라 최초 오르겔 마이스터 홍성훈 오르겔바우대표가 맡았다.

오르겔은 크기에 따라 2천500~5천개 나무파이프가 필요하고 제작 기간도 평균 1년 이상 걸리는 정교한 악기다. 또한 한 악기에서 내는 소리가 20만개를 넘고 그 음역대가 넓어 '오케스트라' 또는 '악기의 여왕'으로 불린다.

그동안 국산 목재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이 대표는 “오르꺾이 중앙회에 놓여진다면 많은 CEO와 일반인에게 국내 목재산업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날 기증은 영림목재 창업자이며 이 대표의 모친 강영신(87) 여사의 사회공헌 의지가 담겨,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는 CEO 모자(母子)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 영림목재, 친환경사업부 출범



영림목재(대표 이경호)가 친환경사업부를 새롭게 편성하고 시판 시장 공략을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영림목재는 올해 초 특수목 사업부 및 물류사업부 부서 중 일부 인원을 독립해 ‘친환경사업부’로 구성했다.

새로 출범된 친환경사업부는 기존의 관급공사 위주로 공급해오던 후로링과 보존처리 목재를 일반 시장에 선보이기 위한 부서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뢰성 있는 자체 브랜드로 승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영림목재 이경호 대표는 “친환경사업부는 회사의 또 다른 주력 상품을 발굴해내기 위한 부서”라면서 “현재 부서 내에서 신규품목 개발을 위해 사업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이경호 목공협 이사장, 산림청장 면담

목재업계에 정책 지원 바란다



이돈구 산림청장



이경호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과 이돈구 산림청장 간의 면담이 이뤄졌다.

지난 8월 12일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경호 이사장은 이돈구 산림청장을 방문. 면담하고 목재업계 현안사항을 설명하며 목재업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이경호 이사장은 그동안 인천 북항 배후단지 내 목재 전용단지 조성과 목재가 공업체 입주를 위한 산림청 협조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목재단지 조성사업과 비용과 가공시설 사업비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우리나라 에서도 일본과 같이 국산재 이용 촉진을 위한 목재산업 발전계획 수립과 목재가공시설 사업비지원, 목조 시범 공공 건축물 건립 필요성을 설명했다. 더불어 4대강 사업에 천연목재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돈구 산림청장은 산림청에서 목재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시범 목조건물 건립 계획, 목재업계 지원 예산 반영 요청 내용 등을 설명하고 기회가 되면 인천 지역 목재업계를 방문해 목재 업계원로들과 대화의 자리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날 방문 면담에는 임상섭 산림청 목재 생산과장과 목재공업협동조합 김용한 전무가 참석했다.

◆ 용마로지스, 신입사원 교육 실시

지난 7월 17~18일, 현대정보기술연수원에서 49명의 신입사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1

년 신입사원 교육이 진행되었다. 17일 오전 교육에서 박동환 사장은 사회인으로 첫발을 내딛는 신입사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용마로지스는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이다. 그런 회사의 신입사원답게 항상 고객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또한 상호간의 소통과 자기개발에 힘써 성장하는 용마인이 되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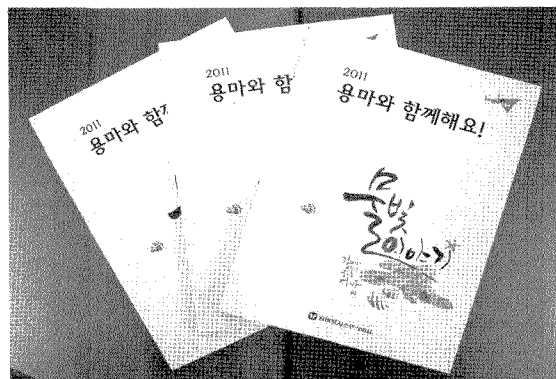


1박 2일 동안 진행된 이번 신입사원교육은 전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신입사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뜻 깊은 자리였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물류기초>, <레크레이션>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의 끼를 맘껏 발휘하였다.

◆ 2011년 『용마와 함께해요』 책자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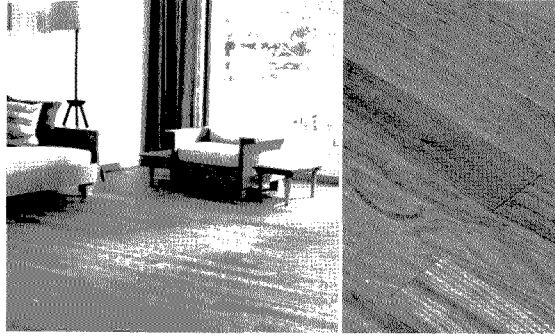
용마로지스는 <2011 용마와 함께해요!> 실시 후 보내 온 소감문, 사진으로 6번째 책자를 발간하였다.

용마로지스는 총 51개 부서에서 가족을 포함한 1,278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 부서에서 보내준 52편의 소감문 중 컨테스트를 거쳐 수상작 5편을 선정하여 2011 용마와 함께해요!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 이견산업, 이견마루 ‘제나 texture(텍스처)’ 출시

나무 무늬결이 살아있어 자연 그대로의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천연마루제품



종합 건축자재 전문기업 이견산업 (대표: 이춘만)이 친환경 합판 마루 바닥재인 ‘제나 텍스처(GENA texture)’를 선보인다.

이견산업의 제나 texture은 실제 나무 무늬결이 살아 있어 자연 그대로의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천연마루이다. 자연의 촉감을 더하는 고품격 마루로서 국내에서 까다로운 기준에 의해 선별된 고급무늬목을 사용하여 무늬결이 한층 더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제나 texture은 Ash, Oak 등의 다양한 수종과 패턴을 보유하고 있어 용도 및 취향에 따라 다양한 컬러, 색다른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유럽 친환경의 척도인 핀란드 M1(유럽 최고 등급)등의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여,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소재에 대해 관심이 높은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킬만한 제품이다.

◆ 두산인프라코어, 산업은행과 180억 원 동반성장펀드 조성 협약체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을 지원하고자 회사가 발벗고 나섰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7월 29일 두산타워 25층 대회의실에서 동반성장담당 이우영 전무와 산업은행 김원일 기업금융2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은행과 180억 원의 동반성장펀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담보제공 없이 기준금리보다 2% 낮은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자금부담을 덜게 된다.

이우영 전무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력사들이 협약체결로 운영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이 향상되길 바란다”면서 “이에 따른 경쟁력 확보로 장기적으로 회사와의 선순환적 파트너십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두산인프라코어,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활동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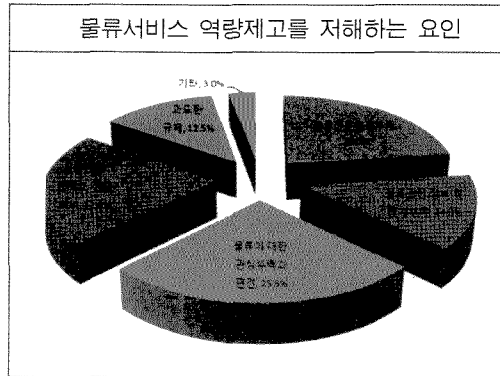
두산인프라코어는 8월 31일 인천 동구 만석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거주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급식 봉사활동에는 이오규 경영관리총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0여명이 함께 참여해 지역 거주 독거 어르신 100여분께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뒷정리와 설거지를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이번 봉사활동에 소요된 비용이 임직원의 '급여끝전 모으기 운동'의 모금액이라는 점이 의미를 더했다. 이오규 사장은 “사회공헌활동 참여는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봉사하는 보람과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도 된다”며 회사는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전국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매월 무료 급식 봉사를 실시해 지역사회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 국내 물류기업 서비스역량 선진국의 70점 수준

법·제도·정책관련 개선 목소리 높아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400여개 화주·물류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물류분야 규제 및 경영애로에 관한 경영자 의견 조사’ 결과 글로벌 선진물류기업을 100점으로 봤을 때, 국내 물류기업의 서비스역량은 평균 70.2점이라고 응답했다. 국내 화주기업의 경우 73.7점, 물류기업은 이보다 다소 낮은 68.9점으로 평가했다.

물류서비스 역량 제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물류에 대한 관심부족과 편견’ (2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물류전문인력 부족’ (23.0%), ‘물류관련 법·제도·정책 미비’ (22.0%), ‘물류 관련 정보 및 통계 부족’ (14.0%), ‘과도한 규제’ (12.5%) 등을 꼽았다. 물류관련 규제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높다’라는 응답이 28.5%로 ‘낮다’ (10%)란 응답보다 많이 나왔다(‘보통’ 61.5%).

개선이 요구되는 규제부문으로 기업들은 ‘물류관련 법·제도·정책’을 45.7%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와 함께 ‘운송·교통’ (43.2%), ‘물류시설 운영’ (38.2%), ‘세금’ (30.2%)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물류인력’ 29.1%, ‘환경·녹색’ 24.1%, ‘인증제’ 20.6%, 복수응답)

◆ 종합물류기업 인증 제도, 개정 완료

시장에서 신뢰하는 서비스 지표 될 것

종합물류기업 인증 제도가 최종 개정됐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종합물류기업의 인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9월 16일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인증대상이 전략적 제휴기업에서 단독기업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동으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간 운영실태 분석 결과 공동영업실적은 부진한 반면, 과다한 인증기업 배출로 시장에서는 '인증'의 가치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국토부는 단독기업으로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만 인증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인증 받은 전략적 제휴기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2014년까지, 공동영업 비율을 20%이상 달성한 경우에는 2016년까지 인증의 효력을 유예하기로 했다.

인증기준에 3자물류 매출비중·매출액 부분도 늘어났다. 물류비를 절감하고, 물류체계를 효율화할 뿐만 아니라 전문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자물류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인증의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물류기업 매출액 중 3자물류 매출비중과 매출액 기준을 각각 30%, 3천억 원에서 40%, 4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3자물류 활용률은 지난 2007년 42.2%에서 지난 2010년 52.1%로 늘어났다.

◆ 세계경기 둔화 속 “물류기업, 자원수출형 국가 공략해야”

“러시아·브라질 등 자원수출형 국가 물류망 선점해야”



국내 물류기업이 최근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물동량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원수출형 국가를 적극 공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지난 9월 28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11차 물류위원회'에서 박재규 범한판토스 전무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EU 재정

위기를 비롯한 최근의 세계경기 둔화 속에서도 러시아, 브라질, 호주, 중동 등 자원수출형 국가들은 내수 중심의 경기부양책을 펴며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내 물류기업들은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물류망 선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미국·EU 등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는 등 세계 시장 급락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면서 “이로 인해 세계교역량 역시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내수규모가 큰 나라들과 이들 국가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은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 주요 물류기업 CEO와 임원 등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 한국국제물류사협회, ‘국제물류사’ 자격시험 수험서 발간

동영상 강의와 오프라인 교재로 활용 예정

한국국제물류사협회(회장 구교훈)가 ‘국제물류사’ 자격시험 수험서를 지난 8월 26일 발간했다.

이 책은 한국국제물류사협회가 주관하고 오는 11월 26일 시행예정인 ‘제1회국제물류사자격시험’ 대비 수험서로 향후 국제물류사 자격증 동영상 강의와 오프라인 교육 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며 한국국제물류사협회의 지정교재이다.

이번에 발간된 국제물류사 교재는 무역업계와 국제물류업계에서 오랫동안 실무경력이 많은 국제무역·물류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편찬했다. 협회 측은 국제물류사 자격시험 대비 수험서는 물론 실무 중심으로 만들어져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물류 실무담당자나 물류를 공부하는 대학생에게 참고서적으로 활용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국제물류사협회의 임원으로 구성된 저자들은 무역과 물류업체, 관세사무소, 물류공공기관, 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며 물류관리사와 관세사,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등의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했다. 아울러 지난 수년 간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분야의 전문 강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물류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 제1회 국제물류사 자격시험 열린다.

한국국제물류사협회, 11월 26일에 시행예정 발표

한국국제물류사협회(회장 구교훈, www.kiclca.or.kr)는 오는 11월 26일에 '제1회 국제물류사 자격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회장은 2009년부터 국제물류사 자격시험제도 기본구상에 착수한 이래, 지난 해 9월에 한국국제물류사협회를 창립하고 지금까지 약 1년 동안 동 자격시험의 시행관련 제반 규정의 제정, 관련교재 발행, 국제물류사자격시험 운영본부 설치했다.

아울러 국제물류와 무역전공 교수진과 국제해상법분야의 변호사와 실무경력 CEO를 비롯한 국제물류와 무역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회 고문과 임원의 위촉 등 모든 시험시행 준비를 마쳤다. 시험시행의 상세한 공고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알 수 있다.

◆ 통물협, (가칭)기업물류위원회 설립

위원장에 GS리테일 조윤성 전무 선출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석태수)는 지난 9월 29일 물류 업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물류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위원회 위원장으로는 GS리테일의 조윤성 전무이사가 만장일치로 추대되었다.

조운성 위원장은 “기업물류는 회원사의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물류부문에 있어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물류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물류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부회장 등을 선임하는 등 집행부를 구성한 후, 향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통해 기업물류와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한 업계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업체별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시 업계의 공통된 의견을 모아 정책수립에 반영토록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의 창구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 물류신문사, ‘의약품/헬스케어’ 교육 개최

의약품 시장과 물류현황 다뤄



물류신문사 산하 <SCM 아카데미>가 8월 24일부터 3일 간 ‘의약품/헬스케어 물류혁신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의약품/헬스케어 물류혁신과정’은 △의약품 시장 트렌드 △의약품 물류관련 법규의 이해 △물류센터운영 혁신전략 △의약품 도매업체 물류전략 추진방안 △의약품 물류 운영 혁신전략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사례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마지막 날에는 현장 견학을 위해 용마로지스와 녹십자의 물류센터를 찾아간다.

◆ 목재 파렛트, 플라스틱에 밀려 설 곳 없다

렌탈시장은 플라스틱 파렛트가 독식, 정부의 목재 파렛트 정책지원 필요

파렛트 시장에서 목재 파렛트의 점유율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어 업계의 시름이 깊어 가고 있다. 특히 그나마 목재 파렛트가 명맥을 유지해온 수출용 파렛트 시장에까지 플라스틱 파렛트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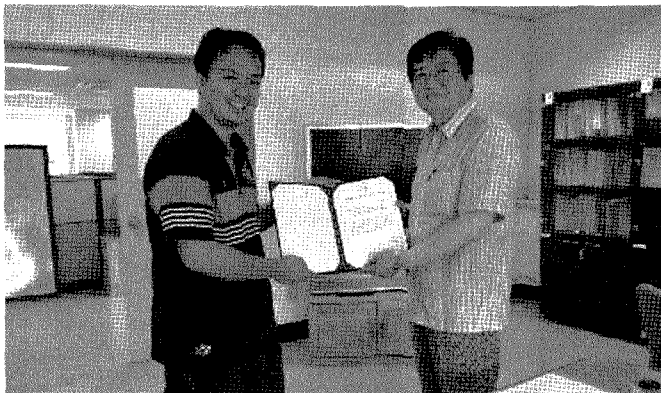
플라스틱 파렛트는 목재 파렛트에 비해 외관상 깨끗해 보이고 세척이 편하며 내구연한이 길다는 장점으로 파렛트 시장에서 급부상해왔다. 특히 파손 없이 오랫동안 파렛트를 회전해 사용할수록 득이 되는 렌탈 파렛트 시장에서는 플라스틱 파렛트가 절대적으로 선호돼 왔다. 또한 식품산업은 벌레, 곰팡이 등의 우려로 목재 파렛트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강화된 방역 문제도 목재 파렛트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요소다. 수출용 목재 파렛트는 방역처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수출 때마다 식물검역소에 직접 방문해 검역서 원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목재 파렛트 업계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만이 목재 파렛트의 점유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정부 지원과 더불어 목재 파렛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말레이시아 산림부 공무원, 산림과학원 연수

이건산업, 영림목재 등 기업체와 실무적인 교육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구길본)은 말레이시아 산림부 MTIB(Malaysia Timber Industry Board) 소속 공무원 2인을 초청해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국립산림과학원 녹색 자원이용부에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 4월 말레이시아 조림산업부장관의 산림과학원 내방 후 이루어진 후속 조치로서 '한·말레이시아 양국간 산림과학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접착, 목재보존, 목질신소재, 목재도장, 목구조, 목재건조, 집성재, 제재, 마루판 등 목재가공 전반에 걸쳐 전문가 강의를 실시했고,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이견산업, 영림목재, 충남대 등 기업체와 대학의 협조에 의해 실무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 대한상의, '유통중소 공동물류 활성화방안' 보고서 발간

공동물류 성공 위해 업체 간 유기적 협력 등 중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유통시장에서 비용절감을 꾀할 수 있는 공동물류체계의 효과와 구축방안, 추진과제 등을 정리한 'SCM CEO 리포트'를 발간하고 회원사를 중심으로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공동물류란 '물류활동에 필요한 노동력, 수송수단, 보관설비, 정보시스템 등의 물류 인프라를 복수의 파트너와 함께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공동물류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은 이유로 민간부문의 낮은 의식수준과 참여의지, 공동물류 추진업체 간 합의시스템 부재 등을 지적했다. 성공전략으로는 공동물류 참여업체 간 합의와 공감대 조성(Consensus), 유기적 협력(Collaboration), 신뢰 기반의 사업 지속성(Continuity)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중소유통기업 당사자 외에도 참여기업 간 이해충돌을 중재할 수 있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세제와 자금지원 방안과 규제완화 사항, 기타 보급사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